탄산칼슘 제조 공정에서 FT-IR를 이용한 정량 분석 및 전화율

<u>황정우</u>, 이융¹, 이동현^{*}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 ¹단국대학교 화학공학과 (dhlee@skku.edu^{*})

Quantitative analysis and conversion by FT-IR spectroscopy in Calcium Carbonate Production

Jung-Woo Hwang, Yoong Lee¹, Dong-Hyun Lee^{*}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, Sungkyunkwan University ¹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, Dankook University (dhlee@skku.edu^{*})

<u>서론</u>

석회석산업은 석회석 및 생소석회의 단순 제조에 의한 제강, 시멘트 등의 용도로 대부 분 사용되고 있으나, 고급화 및 새로운 수요(환경, 식품첨가물, 충전제, 의약품 등) 창출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고품질의 탄산칼슘(calcium carbonate)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[1]. 탄 산칼슘은 결정형태에 따라 calcite, aragonite 그리고 vaterite로 구분된다[2,3]. 자연에 존재 하는 대부분의 석회석은 calcite로 가장 안정한 형태의 탄산칼슘이며, vaterite는 자연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매우 불안정한 입자로 알려져 있다. 따라서 vaterite는 주로 합성에 의 해 제조될 뿐만 아니라 제조된 vaterite는 안정한 결정형태인 calcite로 쉽게 결정화 반응이 일어난다[4].

탄산칼슘은 공업적으로 형상, 입도 제조법에 따라 석회석을 분쇄하여 조제하는 중질 탄 산칼슘과 화학반응에 의해 합성하는 침강성 탄산칼슘으로 분류하며 침강성 탄산칼슘은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미세한 입자 크기로 제조 가능하면서 규칙적인 형태로 만들 수 있다. 또한 침강성 탄산칼슘은 세 가지 제조법(탄산가스화법, 석회-소다법, 소다법) 중에 서도 탄산가스화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[5].

탄산가스화법에서는 현탁액의 농도, CO₂ 가스 농도, 가스 유량, 반응온도 등의 다양한 반응조건에 따라 무정형, 입방형, 방추형, 침상형, 구형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탄산칼 슘 입자들이 제조된다[5].

본 연구에서는 탄산가스화법을 사용하여 탄산칼슘 제조 공정에서 시간에 따른 전도도 의 변화를 통해 반응 종결점을 결정하여 반응 시간에 따른 FT-IR 측정으로 CaCO₃와 Ca(OH)₂의 정량적 분석을 통해 수율과 그에 따른 전화율(conversion)을 계산해 보았다.

이론

탄산칼슘과 수산화칼슘의 함량비에 따른 FT-IR peak를 Fig. 1에서 보여주고 있다. 여기 서 930-730cm⁻¹, 1833-1782cm⁻¹ 그리고 2646-2423cm⁻¹ 에서 carbonate bands peak가 측정이 되며 탄산칼슘의 함량이 많아질수록 intensity가 크게 나타난다. 수산화칼슘 spectrum에서 는 O-H peak가 강하게 나타나며 탄산칼슘의 함량비가 커질수록 O-H peak가 약해지다 100% 탄산칼슘에서는 O-H peak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. 따라서 FT-IR를 이용 하여 특정 peak의 integration을 통한 탄산칼슘의 fraction은 탄산칼슘과 수산화칼슘 혼합에 서 탄산칼슘의 정량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다. 또한 Fig. 2.를 보면 carbonate bands의 세 범위 중에서 930-730cm⁻¹ 범위에서 0.995의 가장 best한 correlation coefficient가 나타났다[7].



Fig.1. FT-IR peak(from top to bottom) CaCO₃; 70% CaCO₃ and 30% Ca(OH)₂; 50% CaCO₃ and 50% Ca(OH)₂; 30% CaCO₃ and 70% Ca(OH)₂; Ca(OH)₂[Legodi et al(2001)].



Fig.2. The analytical curves for percentage CaCO₃/Ca(OH)₂ mixtures vs fraction CaCO₃ [Legodi et al(2001)].

<u>실험</u>

본 실험에서 사용한 반응기는 Fig. 1과 같이 높이가 100cm, 직경이 11cm이고 중앙에 직경 4cm인 튜브가 들어있는 8L 용량의 원통형 아크릴 반응기를 사용하였다. 반응기 밑 에는 glass beads가 바닥에서 15cm 높이로 채워져 있으며 반응기 중앙에 직경 4cm인 튜브 에는 온도를 25℃로 유지하기 위해 온도컨트롤러가 설치되었다. 실험에 사용한 3차 증류 수는 5L이며 gas의 유량은 air와 CO₂ 가스를 합하여 4.0 L/min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. 반응 변수는 수산화칼슘의 농도와 CO₂ 가스이며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전도계와 pH meter는 computer와 연결되어 전기전도도와 pH를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저장될 수 있게 하였다. 수산화칼슘 현탁액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여 합성한 탄산 칼슘은 80℃에서 24시간 이상 건조시킨 후 FT-IR로 분석하였다.



Fig.3. Schematic diagram of the slurry bubble column system.

결과 및 토론

탄산칼슘과 수산화칼슘의 함량비를 달리하여 FT-IR를 측정했으며, 879-711cm-1 범위에 서 CaCO₃/Ca(OH)₂ mixtures vs CaCO₃ fraction은 각각의 함량비에서 3번의 FT-IR 측정을 통해 얻은 peak를 intergration하여 그 평균값을 사용하였다. 또한 계산된 값들은 linear refression을 사용하여 calibration curves 및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. Correlation coefficient의 값은 0.9975로 Legodi et al의 문헌과 비교하여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1번 측정하여 계산한 Legodi et al의 data보다는 3번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사용한 data가 더 correlation coefficient값이 높게 나왔으리라 판단된다. Calibration curves의 regression equation을 사용하여 CaCO₃/Ca(OH)₂ mixtures에서 CaCO₃ 및 Ca(OH)₂의 정량을 계산하는데 이용하였다.



Fig.4. The calibration curves for percentage CaCO₃/Ca(OH)₂ mixtures vs fraction CaCO₃.

0.2L/min CO₂ 유량과 0.56wt% Ca(OH)₂ 농도에서의 전도도 곡선이며 탄산화반응에 대 한 반응 종결점은 전기전도도 곡선상의 최저치에 대응한다[6]. FT-IR 측정은 반응 시간을 10분 간격으로 sample를 채치해 건조한 particle을 측정하였으며, 그 결과를 Fig. 5에 나타 내었다. 또한 regression equation을 사용하여 각 포인트에서의 수산화칼슘의 양을 계산하 였다. 그리고 계산한 값을 바탕으로 Ca(OH)₂의 conversion을 구하였으며 Fig. 6에서는 0.2L/min CO₂ 유량에서 수산화칼슘의 농도에 따른 conversion을 나타내었다.



Fig.5. (a) Conductivity curves by reaction time (b) FT-IR peak by reaction time.



Fig.6. The Conversion curves by Ca(OH)₂ concentration in 0.2L/min CO₂ flow.

<u>결론</u>

탄산화반응에서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탄산칼슘과 수산화칼슘의 함량비에 따른 FT-IR calibration curve chart를 이용하여 탄산칼슘 및 수산화칼슘의 양을 계산하여 수율을 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전화율도 나타낼 수 있었다. 즉 FT-IR 측정은 정성 분석뿐만 아니라 정량 분석도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.

참고문헌

- 1. H.K. Han, O.H. Jeong, M.H. Lim and J.A. Kim, Korean Chem. Res., 44, 3, 289-293(2006).
- 2. W.D. Carlson and R.J. Reeder, Mineralogical Society of America, 11, 191(1975).
- 3. J.W. Park, J.S. Kim, J.W. Ahn and C. Han, J. Korean Ind. Eng. Chem., 17, 1, 67-72(2006).
- 4. S.G. Lyu, N.K. Park, G.S. Sur and T.J. Lee, J. Korean Ind. Eng. Chem., 12, 2, 174-180(2001).
- 5. Y.C. Kang, J.P. Park and S.B. Park, HWAHAK KONGHAK, 35, 2, 319-323(1997).
- 6. D.S. Yoo, S.W. Kang and K.R. Lee, 한국자원공학회지, 34, 60-73(1997).
- 7. M.A. Legodi, D. de Waal, J.H. Potgieter and S.S. Potgieter, Minerals Engineering, 14, 9, 1107-1111(2001).